

### 2003결산 LPG분야 액법 개정안 처리 최대 화두

#### “경유차 허용으로 LPG업계 위기감 가중” “LPG 저공해화·북한 진출 가속화 기대”

올 한해 LPG업계 최대의 화두는 단연 액법 개정안 처리문제였다.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 개정안은 법명(法名)을 바꾸는 것은 물론 충전소의 직판 금지, 허가권역내 판매제 등 메가톤급 현안사안을 담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충전업계는 즉각 이 의원입법안이 판매업계의 작품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대대적인 반대작업에 착수했다. 산자위원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한편 다양한 논리의 반대의견을 담아 곳곳에 뿌렸다. 산자부 역시 정책방향에 어긋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물론 판매업계는 원안통과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실태조사 및 공청회, 인터넷에서의 치열한 공방전 등 우여곡절 끝에 액법 개정안은 원안과는 판이하게 변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찬반을 서로 달리했던 충전·판매업계의 갈등은 끝이 깊어져 LPG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 〈LPG자동차 분야 위기감 가중〉

LPG자동차 분야 또한 위기감이 가중된 한 해였다. 2000년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수송용 부탄에 대한 특소세가 대폭 올라 경유와의 가격 역전 현상이 가속화됐다. 이로 인해 LPG자동차의 증가율은 급감했고 반대로 경유자동차가 폭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다.

여기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 및 산자부 등이 요구해온 경유승용차가 결국 허용돼 자동차충전업계의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 이는 가격구조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경유승용차 허용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기감으로 충전업계는 사상 처음으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켈기대회를 여는 등 LPG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단체 역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가격개편이 필수라고 압박하면서 정부가 겨우 재조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첩첩산중이라는 지적이다.

#### 〈통합업소 약진, 원정판매로 몸살〉

9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판매업

계의 통합작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 등 수도권 통합판매소의 경우 높은 배당과 함께 지분가격이 치솟는 등 구조조정 성공으로 인한 성과를 충분히 거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자유화 이후 유통단계가 마진을 지나치게 높여 LPG가격경쟁력을 스스로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전·판매 등 유통단계 외에도 가격자유화 이후 수입사들이 이익을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LPG안전공급계약제 시행이 2년이 넘었음에도 판매업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정판매로 인해 몸살도 앓았다. 도시가스의 시장침탈로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따리장사’들의 활개로 인해 시장혼란과 함께 소홀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LPG차 개발·북한 진출 기대〉

전반적으로 LPG업계 내부에선 우울한 소식이 많았지만 희망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특히 그동안 LPG자동차의 개발·보급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환경부가 청소차의 LPG 전환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산하에 대한 LPG산업환경협회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 LPG업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역시 세계 최초로 액상분사방식(LPI)의 전용엔진을 장착한 LPG자동차를 양산, 연료의 청정성에 걸맞는 저공해차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침체 내지는 정체되고 있는 국내 LPG수요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판매연합회를 필두로 수입사, 민간 개별회사 등이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의 LPG공급을 적극 추진해 내년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산자부가 수입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LPG와 LNG의 균형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도 향후 결과에 따라서는 LPG업계의 재운비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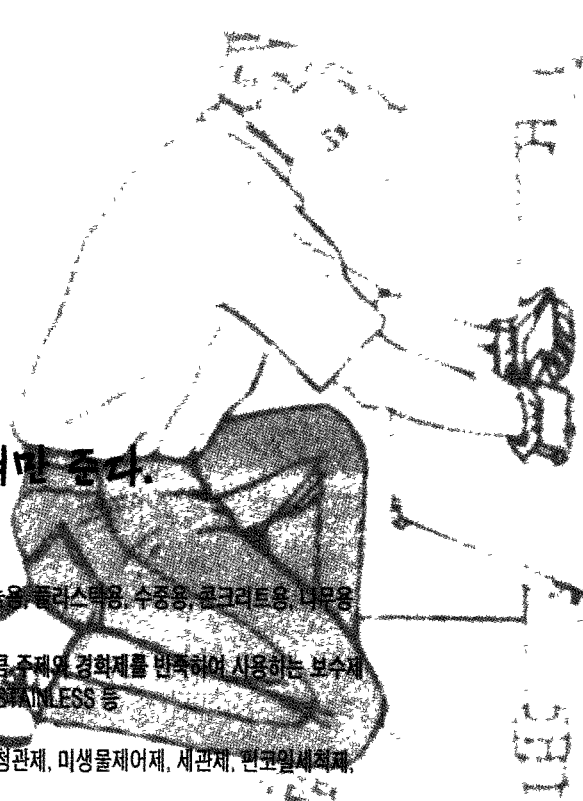
〈한국가스신문〉

### 2003결산 도시가스분야 수요가 1천만세대 돌파, 신장세 둔화

#### “GHP·소형 Co-gen사업 열기 후끈” “지역난방과의 역할분담 여전한 숙제”

올 한해 도시가스분야는 고객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내실경영과 신

# 새고 있는 배관! 손쉽게 해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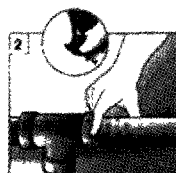

**손으로 짚죽하셔 붙여만 준다.**  
**배관보수 접착제**

▷ 강관용, 동관용, 고온용, 다목적용, 알루미늄용, 플라스틱용, 수중용, 콘크리트용, 나무용

**이액형 보수제** ▷ 주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주격의 경화제를 반죽하여 사용하는 보수제  
STEEL/ALUMINUM/STAINLESS 등

**수처리 케미칼** ▷ 보일러 및 냉각라인의 청관제, 미생물제어제, 세관제, 먼포일세척제, 바닥 및 설비세척제 등

**간편하게 감사서 보수한다.**  
**배관보수 테이프 - PRES**

**사용방법**

1. 땀을 닦고 오염물질을 제거 후 샌드페이퍼나 브러쉬 등으로 거칠기 작업을 한다.
2. 압력을 제어할수 있으면 스틱형 보수제를 부착하여 누설부위를 막는다.
3. 압력이 제거가 안되면 생고무 롤을 누수지점에 감아준다.
4. 다 감은 후 감은 방향으로 부드럽게 맞사지 작업을 해준다.

\* 맞사지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장갑을 벗고 손에 물을 묻혀 작업하면 작업이 더욱 용이하다.



규사업이라는 사업다각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판매신장은 수도권이 4~8%선, 지방시는 7~15%수준의 신장률을 보여 확연히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를 타파하기 위해 GHP와 소형 Co-gen사업에 적극 참여해 상당한 실적을 올리는 등 내실 있는 결과를 쏟아내기도 했다.

배관공사 관련정보를 시공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불명예스러운 사건도 발생했고, 지역관리소와 도시가스사간에 수수료 현실화를 놓고 양측간의 분쟁도 어느 해 보다 뜨거웠다.

또한 제도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성장 둔화와 사업다각화>

높은 보급률에 따른 저 성장과 함께 평년보다 3~5°C높았던 기온 때문에 판매량 둔화가 두드러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감소 또는 동결됐고, 대부분의 도시가스사들이 올초 세웠던 판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비록 판매신장은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를 돌파하기 위해 수도권 도시가스사를 비롯해 지방사까지 GHP사업과 소형 Co-gen사업에 적극 참여해 짧은 기간 내 좋은 결실을 맺기도 했다.

특히 소형 열병합발전사업부문의 확대를 위해 서울·경동·중부도시가스가 ESCO사업자로 등록했고, 삼천리의 경우 신규사업의 선두기업 단계 600여대의 GHP판매실적과 업무용 Co-gen 부문에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대한, 극동, 한진 등 많은 도시가스사가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라 앞으로 이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활발해진 고객서비스 활동>

고객만족경영을 표방한 도시가스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CS활동은 상당한 성과와 함께 올해 많은 시스템이 도입,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콜 센터 운영, 인터넷을 활용한 요금 납부, One Stop System 등 다양한 CS활동이 쏟아졌고, 이를 활용한 고객서비스 활동이 자리를 잡게 됐다.

지역관리소의 업무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DA시스템도 도입됐다.

자율안전점검을 정착하기 위해 많은 도시가스사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교육과 안전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안전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등 가스안전 문예대회도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 이 같은 내실경영으로 일부 도시가스사는 고객만족분야에서 여러가지 상을 받았다.

<각종 제도와 쟁점사항들>

올해는 많은 연구결과가 쏟아졌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결과에서부터 지역관리소와 도시가스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개선방안도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판매량 오차에 따른 개선방안도 도출됐고 이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 보급사업도 올해 들어 첫 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론론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역난방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관리소와 관련된 개선방안도 도시가스사의 무관심으로 싹을 틔우지 못했다. 내년에도 이 문제는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여 개선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요금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올해 가장 큰 성과는 단연 HOB와 관련된 열전용 보일러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이다. 서울시가 이를 개선했고 경기도 역시 내년에 대폭 개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지방세중 취득세가 내년부터 50%로 감면되고 도로매설 관련 이설비용도 내년부터 줄게 되는 등 도시가스사와 관련된 각종 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도시가스에 붙은 특수세 감면 관련법과 산업용 LNG요금의 공급비용 인하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내년에도 특수세 감면 문제는 또 다시 거론될 것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사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도 뜨거운 감자로 재거론될 것이다.

<한국가스신문>

2003결산 천연가스분야 구조개편 원위지, LNG직도입 붐물

“신규 장기도입물량 러브콜 줄이어”

올 한해 LNG업계에서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보완결정, LNG수급불안 발생, 이르쿠츠크 PNG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완료, 신규 장기도입물량에 대한 해외생산국들의 러브콜 등 다사다난한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

LNG업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던 가스산업구조개편 문제는 기존 기본계획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산업자원부가 지난 2월 20일 제

236회 임시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지속 추진하되 구조개편 내용의 일부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망산업, 배관을 포함한 설비부문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도입도매부문의 분할방식 등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산자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기존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변화를 뜻하며 기존 방침에서 크게 변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포스코의 경우처럼 자가용 LNG직도입을 추진하는 사례부터 자연스럽게 신규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사업자가 도입사업자로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자가용 LNG의 공급사로 인도네시아 탕구 LNG 컨소시엄(Tangguh LNG:주개발자 BP)을 선정하고 지난 8월14일 포스코센터에서 LNG구매 HOA(Heads of Agreement: 주요조건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을 거쳐 본 계약이 체결되면 포스코는 2005년부터 20년간 매년 55만톤의 LNG를 도입, 현재 건설중인 광양 LNG터미널을 통하여 포항(345MW)과 광양(500MW)의 자체 발전소 및 조업 현장에 공급하게 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내에 건설하고 있는 LNG터미널은 연간 170만톤의 LNG를 저장, 공급할 수 있는 설비로 당초 계획대로 2005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신규 장기(長期) LNG도입계약에 대한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해외 LNG생산국들의 줄이는 한국방문과 함께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해외 LNG생산국들의 한국방문이 꼬리를 잇는 이유는 그동안 가스산업구조개편과 관련 풍풍 뭉여 있던 2007년 이후의 신규 장기 LNG도입 물량에 대한 입찰이 곧 시작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이르쿠츠크 PNG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11월 14일 완료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가스공사 오강현사장, 러시아 석유회사(RP社) 대표, 중국국영석유회사(CNPC)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이 이뤄졌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3년여에 걸쳐 가스전 및 배관분야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한·중·러 3개국에 대한 공급 경제성 검토가 이뤄졌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업적 협의가 가능한 가스가격 수준은 3개국 정부의 승인후 다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3~4월중 낮은 추위와 발전사의 LNG사용급증 등으로 LNG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료전환을 실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 및 수급관리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11월까지 국내 LNG판매는 총 1,589만7천톤으로 전년동기대비 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중 도시가스용은 1,022만7천톤으로 7.0%가 증가했으며 발전용은 567만톤으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신문>

아시아 중유가격 하락 전망

중동산 연료유 수입물량 늘어

공급과잉과 중국 내 수요감소로 인한 아시아 연료유가격 하락세가 다음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이 수입량을 3분의 1 정도 줄임에 따라 거래상들이 할인판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거래상들이 아시아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가격대인 중동산 연료유에 대한 수입물량을 늘리고 있어 지난 5개월 동안 15%나 떨어진 연료유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이나 에비에이션 오일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10월과 11월에 이전보다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월평균 160만톤의 연료유를 수입하는데 그쳤으며 그나마수입원을 아시아 최대의 거래시장이 있는 싱가포르에서 한국과 러시아로 돌렸다고 전했다.

한편 2월 인도분 원유가격이 미 동북부 지역의 난방유 수요가 온화한 날씨로 인해 감소할 것이라 전망으로 인해 3일 연속 하락했다.

2월 인도분 원유가는 이날 뉴욕상품거래소 시간외 전자거래에서 한때 배럴당 0.7%인 22센트가 빠진 배럴당 31.65달러까지 떨어졌다.

ABN 암로의 한 관계자는 원유가가 배럴당 30달러의 고유가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기간에 날씨가 따뜻할 것으로 예보돼 수요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열관리사업회보 광고문의 T.2679-6343